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이어서-

두리원 대 표 김 해 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9. 백혈병과 암

1. 프로폴리스란 이런 것이다.

1) 의사면허 취소 당해도 좋다

나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 말을 해도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밖에는 하지 않는다.

나의 발언이 행정기관이나 의약업계에 분쟁이 일어나서 내 자신이 분쟁의 제물이 된다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치과의사의 면허가 반납되어도 조금도 겁날 것이 없고, 의학박사 학위도 언제든지 내어 놓으라고 하면 내어 놓을 수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려운 지점에까지 와 있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 다소 편안하다.

옛날 의사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도 도움받는 것을 중요시 했다. 그것이 바른 자세요 올바른 행동이다. 그러나 지금의 의사들은 과학이나 사람의 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요즘 의사들 가운데 바보같은 의사는 세균지식이나 약지식만 갖고 병을 고치려고 한다. 그 실험 대상은 먼저 동물이 되어야 하지만, 인간을 동물로 착각할 때가 있다.

어떤 병에는 약 몇 mg이 투여해야 한다고 배웠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 사람의 저항력이나 체질도 보지 않고, 남자나 여자도 구별하지 않는다. 체중에 따라 약의 분량도 달라져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나의 체중이 얼마라고 해도 무시를 당한다. 동일하게 1일분으로 처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있다.

나는 병원도 경영했고, 치과의사로서도 수 십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은 얼굴만 보아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내게 오는 환자들 가운데는 턱, 코, 귀밑 같은 데 암이 발생해 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프로폴리스를 권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페니실린이라는 항생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프로폴리스는 자연항생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귀한 물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페

니실린이란 항생물질의 출현으로 자연물질의 항생제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물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 인간이 만든 의약품을 사용하는 가운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고, 사용하였던 약에서 내성이 생겨버렸다. 화학제품약들의 투여량은 점점 늘어난 반면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지만 의사는환자를 무시하고 그 약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과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손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자본주의에 의한 배급사상이 늘어남으로 세계의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출현한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인류에게 주어진 고귀한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 프로폴리스는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차카와류노케이의 유명한 소설 『거미줄』이라는 것이 있다. 지옥에서 탈출하여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석가모니가 드리워 준 한오라기의 실이었다. 실과 같은 그것이 바로 프로폴리스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2) 사재를 털어 백혈병을 돕다.

지금 백혈병에는 골수이식이 최고의 치료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골수이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린이가 골수이식 수술을 힘들게 받아도 살아남는 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죽어가는 자를 볼 때 인생으로 태어나 어깨를 펴 보기도 전에 죽는 것이 너무 참혹해 보인다.

나는 골수이식 같은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본 내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나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프로폴리스를 공급시키려고 한다. 내 나이 벌써 74세이며 이 세상에 살아도 얼마 남지 못할 것이다. 저승길에 갈 때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겨두고 가는 재산이므로, 내 인생의 최후를 백혈병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

어린이에게는 위암이나 폐암은 거의 없다. 어린이 암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혈병은 5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원인 중에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다.

백혈병이 어린이의 암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백혈병이 진행되면 신경세포종, 뇌종양, 악성 임파종, 망막세포종 같은 악성으로 변하게 된다. 어린이의 백혈병이 일본 내에서 1년에 약 2,500명이 발병한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다. 이것은 공식기록에 속하지만, 종합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산하면 실제 숫자는 더욱 많을 것이다.

최근 어린이의 백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학계나 후생성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방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 핵연료에 의한 방사능 등의 복합된 오염에 의해 암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화학요법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은 병증상이 다소 나아졌다해도 결국은 일시적인 억제에 지나지 않는다. 시일이 지날수록 부작용을 더 생겨나고, 병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은 살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절망적인 화학요법에서 생각해 낸 것이 골수이식이다.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체이다. 그런데 마치 인간을 하나의 동물 실험으로 사용하듯이 인간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골수이식은 건강한 사람, 그것도 20세 전후의 골수를 빼내어 백혈구만 만들어 내는 환자의 골수에다 이식시키는 것이 골수이식이다. 이러한 이식을 했다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다.

새로운 학설이나 수술방법이 나왔다 하면 부모들은 그것을 신봉한다. 나는 그때 그것이 어린이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는지 아는가?

부모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기도 했다.

이제부터 일본을 짊어질 어린이들의 장래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항암제나 방사선을 대량 조사하였을 때 어린이 몸 속에 있는 면역기능은 일제히 없어진다. 의식도 거의 없어지고 심장은 움직이고 있지만, 절반은 죽은 상태에 있다.

골수 이식하는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 없는 돌자갈 밭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어 과실로 대체하듯이 건강한 골수를 이식하여 새로운 세포로 재생시키려고 한다.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망가진 세포들이 쉽게 재생될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의문을 갖는다.

연속적인 검사뒤에 서로가 맞는 골수를 찾는 데는 수 만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 정도다. 힘들어서 맞는 골수를 찾았다해도 이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그 기간에는 항암제를 대량으로 투여하게 되고 방대한 방사선을 쬐이게 된다. 내 자신이 간곡히 바라는 것은 그 기간만이라도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사이에 부작용이 없는 프로폴리스를 사용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재검사에서 나타났으면 골수이식이나 화학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 때로는 프로폴리스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권위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할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때로는 환자 스스로가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나와 인연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프로폴리스는 먹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먹는 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단 환자들은 값이 사면 효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는 데도 소홀히 생각한다. 효과는 없어도 값만 비싸면 좋은 줄을 알고 열심히 먹는 소갈머리 없는 환자도 수없이 보아왔다.

당장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 당신 해 볼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권한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귀찮게 여러 말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치료방법이다. 환자쪽에서는 필사적으로 애써 구하지 않는 한 귀중한 목숨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진짜 프로폴리스는 이젠 지구상에 한정된 분량밖에 없다.(이 방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 저자주)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본 사람에게만, 그것도 어린이들에게만 먼저 주고자 한다. 이웃나라 사람에게는 주고 싶어도 그만한 분량이 없다.

3)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체험

어느 날 미조쿠찌 치과의원 대합실에는 환자들이 어울려서 프로폴리스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강사는 미조쿠찌 의사였고, 강의 내용은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던 자신의 체험이었다.

미조쿠찌 의사는 프로폴리스의 복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갔다. 자신의 암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렇게 수술을 받은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고, 남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강연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랫동안의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목숨은 사경에 이르렀고 모발은 다 빠져버린 상태였다. 프로폴리스로 인해 백혈구 수가 증가되고, 몸이 회복되면서 머리카락은 종전보다 더욱 새까맣게 났다. 이것은 육묘효과다. 지금 각 화장품 회사가 육묘 효과에 대한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비가 수십억 엔이라는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프로폴리스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맨 처음에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던 날 밤 자리에 누운 즉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상쾌한 잠을 잤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즈음 수족이 어찌나 따뜻한지 집에서는 양말에 땀이 나고 귀찮아서 벗고 지낸다. 이것이 혈액순환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해도 싫어지거나, 피로해지는 일이 없고 끈기가 계속 지속된다. 이것은 건강이 증진되어서 나타난 효과이다.

나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병치레를 하여 언제나 얼굴색이 거무스레하고 피곤끼가 항상 있어 보여서 누가 보아도 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부터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니 얼굴 모습도 달라져서 전에 보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밝아졌다.

한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걸음도 잘 걷지 못했는데, 고통에서 해방되어 걸을 수 있게 된 예도 있다.

자궁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이 프로폴리스를 대량으로 복용하기 시작하고 검사할 때마다 암이 위축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수술을 미루고 더욱 열심히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게 되었다. 드디어 암종양이 소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끓는 물에 데여 발에 화상을 입은 여성이 환부에 수돗물에 차게한 뒤 프로폴리스액을 발라 주었다. 처음에는 따가워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였지만, 잠시 후부터는 통증이 가시어졌다. 그 후에도 화농되지 않고 낫게 되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화상의 흔적 없이 낫었다는 것이다.

4) 약학 박사의 체험기

나와다 키지씨는 미조쿠찌 치과원의 환자로 왔다가 프로폴리스에 대한 약효를 듣고 복용하기 시작하여 건강을 되찾은 분이다. 건강을 얻은 뒤에도 계속 프로폴리스를 건강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벌써 7년째다.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은 하나의 낭설이다. 합성약제를 7년간이나 복용하였으면 다른 병을 다시 얻었을 것이다.

나는 제약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약학박사이다. 미조쿠찌 선생과의 만남은 1984년도에 있었다.

어느 날 진료대 위에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프로폴리스를 복용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맨 처음 복용할 때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먹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액 1병 받고, 그날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따뜻한 꿀물에 프로폴리스 5방울을 타서 마셨다. 그날 밤은 다른 날

과 달리 일찍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항상 잠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는 습관이 있었다. 깨고나면 다시 잠을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오지 않아서 심야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 듣는 중에 잠이 들기는 하지만, 반수면 상태로 일어난다.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한시간이라도 수면을 더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잠이 부족했다. 그렇데 이날만은 한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했다. 복용량이 점점 늘리고 아침, 저녁 2회로 복용하였던 바, 수면효과도 더욱 뚜렷해졌다.

나는 본래부터 소모성 체질이였다. 이전만 하여도 하루 일과가 지겨웠고, 일에 재미가 없었다. 복용한 이후부터는 일을 시작하면 일에 몰두하게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빨리 오는 것 같았다. 퇴근시간이 되어도 일을 더 하고 싶었고 일을 해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런 모든 것이 신경계통의 자극에서 오는 효과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상태였으므로 체력이 강해질 때 이러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프로폴리스 복용이후로 머리의 잡념이 사라졌다. 오랫동안 정신적인 일을 해도 산만함이 없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일의 능률도 많이 높아졌다. 일이 생겼을 때는 맞설 의욕도 생겨났다. 마치 대학시험을 공부할 때와 같이 젊음이 되살아난 기분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봉기구 도소매 및 벌꿀수매

- 벌꿀수매
- 봉기구일체
- 농축시설완비
- 양봉상담

대전양봉원

대표 박기문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00-11

TEL : 042)636-9896 / 042)636-9836

H.P : 011-209-9896